

펜으로 '오월의 숨결'을 잇다

광주전남·한국작가회의
25~26일 오월문학제 개최
심포지엄·시화전·사적지 답사 등
광주정신 공유...나아갈 길 모색



오는 25일~26일 오월문학제가 전일빌딩245 등서 열린다. 지난해 열렸던 오월문학제 모습.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명제다. 잠시 총칼로 정권을 찬탈할 수는 있어도 '펜'의 위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 역사의 허다한 불의한 권력들이 무너졌고, 지금도 붕괴되는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80년 5월 당시 '펜'으로 불의한 세력에 저항했던 문인들이 다시 하나가 된다.

오월항쟁 44주기를 맞아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정영주)와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윤정모)가 오월문학제를 연다.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전일빌딩245(9층 다목적강당)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이번 오월문학제의 주제는 '오월의 숨결, 세대를 잇다'. 오월의 의미와 깊은 뜻을 세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바람을 담고 있다.

정영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이번 44주기를 맞는 오월문학제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등 각지에서 작가들이 참석해 오월과 오월문학의 뜻을 새기고 조명하는 자리"라며 "문학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매개로 오월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을 다각도로 룬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월문학제에서는 심포지엄, 5·18문학상 시상식, 본행사, 결개시화전, 5·18사적지 답사 등이 펼쳐진다.

먼저 25일 전일빌딩245에서 열리는 오월문학심포지엄은 박일우 작가의 사회 이영신 시인이 기조발제를 하고 정민구(전남대), 김영삼(전남대)이 발제를 한다. 이송희(전남대), 이진 소설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오월문학총서 발간식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5·18문학상 시상식이 열려 시집 '니들의 시간'으로 본상을 수상한 김해자 시인에게 상패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인상 도형주 '기억 너른 다근 리을'(시), 박복삼 '조금만 기다려요'(소설), 이정란 '그림동전'(아동문학)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본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하상일)는 "수상작이 리얼리즘 시의 취약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바탕을 만드는 강력한 전환점"이라고 평한 바 있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는 본격적인 오월문학제가 펼쳐진다.

정영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의 인사말과 내빈소개, 김완 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전 회장)의 환영사, 김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축사, 이오우 전남작가회의 회장과 정선호 경남작가회의 회장의 연대사 등이 예정돼 있다.

시낭송과 축하공연에서는 지역 작가들과 타지에서 온 작가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시낭송1'에서는 변윤제, 이병국, 최미경, 박노식 시인이

낭송을 하고 '시낭송2'에서는 한도숙, 조선남, 김학성, 마형기 시인이 단상에 올라 시로 그날의 아픔 등을 전한다. 다음으로 선언문 낭독, 축하공연을 마치고 나면 참석자들이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계획이다.

이튿날(26일) 회원들은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선다.

이에 앞서 5·18기념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전 '불의 연대기'를 관람하고 망월동으로 이동해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김완 전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되었던 학살과 폭압에 대해 펜으로 맞섰던 작가들의 의기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빛을 발한다"며 "이번 '오월의 숨결,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문학제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광주정신을 공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5·18묘역 일일에서는 5월 들어 결개시화가 전시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중의 삶 시어로... '농무' 신경림 시인 별세

시대의 아픔 감성적 어조로 형상화... '가난한 사랑 노래' 등 대표작



시와 어조로 형상화했다.

1936년 충북 충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1956년 '문학예술'에 '갈대' 등이 추천돼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농민들의 한과 아픔을 담은 첫 시집 '농무'를 펴냈으며 이후 '쓰러진 자의 꿈', '저 푸른 자유의 하늘', '빨', '낙타' 등을 발간했다. 만해문학상을 비롯해 한국문학작가상, 대산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등 유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정영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한국문단의 거목이 돌아가셔서 아쉬움과 슬픔이 크다.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민중시, 쉬운 우리말로 시를 써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다"며 "무엇보다 좋은 시를 발굴하고 후배를 키우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앞으로 한국시단이 신경림의 시 정신을 받들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중의 삶을 생생하면서도 일상의 언어로 노래했던 '농무'의 시인 신경림(사진)이 22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8세. 문단관계자에 따르면 암으로 투병하던 시인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한국 문단의 원로이자 현대시사에서 차지하는 문학적 위상이 남다른 시인이었다. 특히 그의 '농무'와 '가난한 사랑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대표작으로 고인의 문학적 역량이 결집된 시다.

지난 1971년 발표한 '농무'는 농민들의 생명과 삶의 애환을 표현한 작품이다. '농무'는 단순한 춤이 아닌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춤이라는 몸짓을 통해 저항하는 수단으로 의미화돼 있다. "우리는 협동조합 밭앗간 뒷방에 모여/ 목내기 화투를 치고/ 내일은 장날, 장꾼들은 약자지경/ 주막집 뜰에서 눈을 툄다./ 들과 산은 온통 새하얗구나..."

당대 농민들의 궁핍한 상황을 허름한 공간과 술집 등을 매개로 풀이한 '농무'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상 언어와 우리 가락으로 풀이낸 수작이다.

또 다른 명작 '가난한 사랑 노래'는 도시 노동자들의 암울한 현실을 편지라는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저버려야 하는 시대의 아픔을 시인은 특유의 감성적

목요일 밤 '클래식'으로의 초대



문화예술단체 '아랑'의 연주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 11월21일까지 18회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목요 콘서트'.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5월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클래식 공연 '목요 콘서트'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오후 7시 30분)를 개최한다.

먼저 오는 23일에는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오페라이야기 '제왕'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아멜리아상날'이 출연해 오페라 '마술피리'와 '리골레토'의 대표적 아리아, '카르멘'의 댄스곡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30일에는 문화예술단체 '아랑'이 '첼버오 케스트라 20세기 작곡가 명곡·20세기를 탐하다!'라는 주제로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정수를 선사한다. 현악 5중주 첼버오케스트라가 출연해 베르디, 거슈윈, 막스 브루흐의 작품을 비롯해 오케스트라

및 영화음악을 작곡한 존 윌리엄스의 작품들을 연주한다.

'퐁당클래식'이 준비한 공연 '사랑의 미로'는 6월 13일, 한소리회의 '7바레 송'은 같은 달 20일 펼쳐진다. 크리에이티브아트가 들려주는 '오페라 그림에도 불구하고 갈라쇼' (6월 27일), 아르플레넷의 '색채의 멜로디' (7월 11일)을 비롯해 벨리체 솔리스트의 '여인들의 오페라 사랑' (10월 17일), 질리의 '노래 입은 우리나라' (11월 21)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마련된다.

빛고을시민문화회 송선아는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 전달하며,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경영 일환으로 객석 10% 이상은 광주 문화누리 이용자를 위한 무료 좌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관객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입장료 5000원, 빛고을시민문화회 사전 예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아빠들, 도전! 육아 골든벨 성평등 돌봄 구축...다음달 1일 시청 시민홀

성평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에 거주하는 아빠(예비 아빠 포함)를 대상으로 골든벨이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제3회 '도전! 아빠육아 골든벨'을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16일부터 선착순으로 50명을 선착순 모집,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송원대 유아교육과 울동팀 공연을 비롯해 마술, 저글링 및 에어바운스, 페이스페인팅, 키다리 피에로 등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즐기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된다. 행사장 한편에는 간식 먹거리와 3D입체 퍼즐·부직포가방 만들기 체험 부스도 설치될 예정이다. 퀴즈는 광주시와 관련되거나 임신, 출산, 육아

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예선과 본선을 나눠 진행된다. 참가자 드레스 코드는 흰티에 청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신규참가자 우선 선발) 1등 상에 40만원 상당의 콤팩트 건조기, 2등 상에 마사지기 등을 증정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두유제조기, 알잡이블세트, 도서 상품권 등을 행운권 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난해 5월 제2회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행사 장면. <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